

가정통신 2020

제3호 자/녀/사/랑/하/기

자녀의 건강한 정서행동발달을 위해서



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
School Mental Health Resources and research Center



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마음 건강
내 아이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
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
고루고루 발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학생 정서·행동특성검사는?

- ① 내 아이의 정서·행동발달에 어떻게
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살펴보고
- ② 학생들의 성격 강점과 정서·행동 발달
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학교에서
시행하고 있는 검사입니다.





정서발달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.

- 1 자녀의 정서발달 상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.
 - 자녀의 기질, 부모의 양육 방식, 그동안의 경험 등에 따라 다릅니다.
- 2 부모님이 자녀의 감정에 예민하게 잘 반응하고 공감 해주세요.
 - 부모님의 반응에 따라 자녀는 자신의 기분을 더 잘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
- 3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고, 감정을 조절하는 모범을 보여주세요.
- 4 감정조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



10~20%의 소아 청소년들은 정서·행동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.

- 1 같은 교육환경에서도 아이마다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- 2 내 아이의 타고난 강점·약점·특성을 관심있게 살펴 봐주세요.
- 3 정서행동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, 성장 시기에 맞는 적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.
 -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문제가 악화될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중요합니다.





자녀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 학교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.

- 1 자녀의 강점·특성,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미리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세요.
- 2 자녀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면 먼저 자녀의 관점에서 감정을 이해하고 차분히 들어주세요.
- 3 자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주세요.
- 4 자녀에게 부모님이 함께 문제를 돕는다는 것을 알리고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주세요.





'학생정서·행동특성검사' 란?

- 1 학생의 성격특성과 정서행동발달의 정도를 파악하여 교육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검사입니다.
- 2 교육부에서 매년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
※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대답하는 방식입니다.
- 3 자녀의 성격강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.
- 4 부모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자녀가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.





'학생정서·행동특성검사' 란?

5 자녀의 성격강점을 칭찬해주세요.

- 힘든 감정도 잘 표현하도록 격려하며 어려움이 생기면 돕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주세요.

6 총점 평균을 바탕으로 기준점수보다 높을 때 '관심군'으로 선정됩니다.

- 이는 '정신질환' 의미가 아니며 아이의 어려움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.

※ 가정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보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교사와 상의해주세요.

7 필요한 경우, 전문기관을 통해서 심층평가가 진행됩니다.

(예: 위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 등)





'학생정서·행동특성검사' 란?

8 검사·상담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.

- 학생부와 건강기록부에 남지 않고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.
- 또한 학교생활에 절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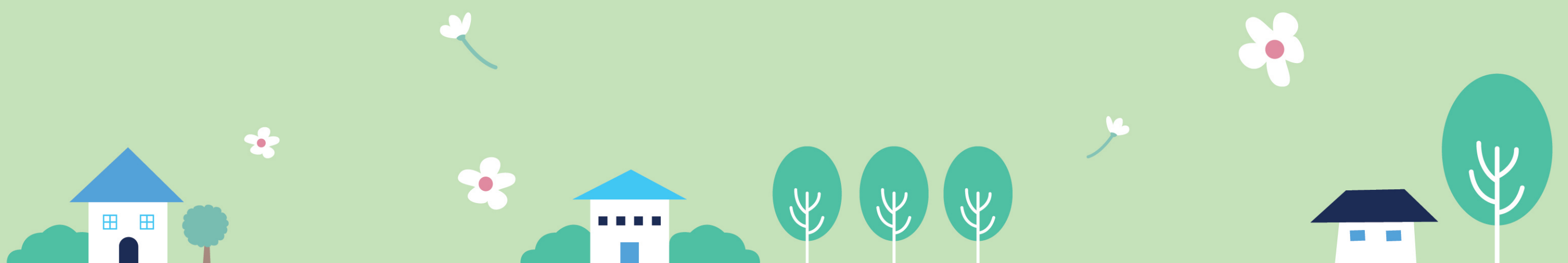
자녀의 정서는 **부모님과의
상호작용을 통해** 발달합니다.

차근차근 성장하는 자녀의 마음
학생정서 · 행동특성검사를 통해
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 주세요.

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
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
(02-6959-4542)에 문의해주세요.



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
School Mental Health Resources and research Center



본 뉴스레터는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한
“자녀 사랑하기” 3호이며, 총 10회에 걸쳐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.